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

메시지 1-2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기적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임

성경: 고전 8:1하, 12:31하, 13:1, 4-8, 13, 14:1, 3, 4하, 요 21:15-17, 갈 6:2-3

I.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서로에 대한 여러분 각 사람의 사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칭찬했다 — 살후 1:3.

- A. 주님을 믿는 것은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바로 그 인격을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믿음에서 나오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살아 낼 수 있게 된다 — 벰후 1:1, 히 12:1-2상, 고후 4:13, 갈 5:6, 요 1:12-13, 21:15-17, 골 3:4.
- B.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갖게 되었다’(딤펴전 1:14).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받아들이고(요 1:12),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인 주님을 누린다(요 14:21, 23, 21:15-17).
- C. 우리는 이 놀라운 믿음 안에서 또한 삼일 하나님의 이 지극히 탁월한 사랑으로 그분과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우리는 교회 타락의 흐름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연기를 갈망하시는 이기는 이들이 될 수 있다.

II. 주님의 회복은 첫째가는 사랑 곧 제일 좋은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 즉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 엡 4:15-16, 계 2:4-5.

- A.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 엡 5:25.
- B.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게 될 때, 교회의 타락이 시작된다. 첫째가는 사랑 곧 제일 좋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주님께 으뜸의 위치 곧 첫째 위치를 드리며, 그분의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의 생활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취하는 것이다 — 계 2:4-5, 골 1:18하, 고후 5:14-15, 막 12:30, 시 73:25-26.
- C.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아들인 바로 그 생명이 인격이며, 이 인격을 적용하고 우리는 유일한 길은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순간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새롭게 접촉하여 그분의 현재의 임재를 누려야 한다 — 요 11:25, 14:5-6, 딤펴전 1:14, 요 14:21, 23, 고후 5:14-15, 계 2:4-7, 골 1:18하, 롬 6:4, 7:6, 영한 동변 찬송가 559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412장).
- D. 우리는 홍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기고 떠밀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신성한

사랑은 분명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큰 파도와 같아서, 우리를 강권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게 하고 우리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그분을 사랑하게 한다 — 고후 5:14.

- E. 우리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려면 일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며, 그분의 이름다움(사랑스러움, 즐거움, 유쾌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께 여쭙기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점검받는 것이다 — 시 27:4.

III. 동역자들과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과 활력 그룹의 모든 사람 사이에 사랑이 편만해야 한다 — 고전 12:31하, 13:4-8, 13.

- A.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 종(種) 곧 하나님의 종류가 되었으며(요 1:12-13),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8, 16).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므로, 우리는 또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 자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 B.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한다 — 유 19-21, 고후 5:14, 벧전 1:22, 요일 3:14-16, 4:7-21.
- C.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입하시고, 또 우리 안에 사랑을 산출하셨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한다(요일 4:19-21).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인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표현되시도록 하는 것이다 — 요일 4:16-17, 영한 동번 찬송가 546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1059장), 영한 동번 찬송가 547장(내 마음의 노래 214장).
- D. 우리는 야심과 교만을 주의해야 한다.
 - 1.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의 손안에서 유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축복을 가져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의도와 목적과 동기와 행동에 어떤 형태의 교묘한 야심도 없도록 정결하게 된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 마 5:8.
 - 2. 교만은 파멸을 의미하며, 교만한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겸손은 우리를 온갖 종류의 파멸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한다 — 약 4:6, 벧전 5:5.
 - 3. 우리는 결코 주님을 위한 어떤 일에서도 으뜸이 되기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요삼 9). 주님의 일에서 경쟁하는 것은 야심의 표시일 뿐 아니라 교만의 표시이다. 자신의 역량, 성공, 온전함, 미덕을 언급하는 것은 교만의 경솔한 모습이다(눅 17:10, 빌 1:15, 갈 5:25-26).
 - 4.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다(롬 12:3).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자신의 뜻을 좇으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며, 헛된 영광을 탐내는 것은 모두 교만의 추악하고 비열한 표현이다(갈 5:25-26).
 - 5. 크게 되기를 원하고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 또한 교만의 표시이다 — 마 20:26-27.

6.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 대해 친밀한 관심을 가지며, 서로 소중히 보살피고 보양하며, 항상 서로 덮어 주고, 서로에 대해 좋게 말해야 하며, 결코 다른 사람의 실재나 결점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후 7:2-3, 엡 1:15-16, 몬 4, 고전 13:4-7, 비교 마 24:49).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골 3:12-15).
7. 우리는 한 면으로는 강한 분별력을 지니고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을 살피는 분명한 시각이 있어야 하고, 또 한 면으로는 영적으로 눈멀어야 한다 — 사 11:1-4상.
8. 우리는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비방하는 것은 심하게 혹은 지나치게 꾸짖거나 비평하는 것이다. 비방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더러운 말로 비난하는 것이다. 비방하는 것은 단지 어떤 사람을 꾸짖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오만한 나머지 그를 대놓고 무례하게 대하거나 경멸함으로써 그에게 심한 상처를 주고 그를 짓밟는 것이다 — 갈 5:14-15, 25-26.
 - a. 비방하는 사람들은 동료 노예들을 때리는 이들이다. 이것은 그들이 동료 믿는 이들을 습관적으로 학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 마 24:45-51, 고전 6:9-10.
 - b. 비방하는 말을 수용하는 사람도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은 책임이 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유지하려면 형제자매들은 반드시 비방하는 말들을 이겨 내야 한다 — 고전 6:10, 비교 민 6:6.
 - c. 죄에 대한 의식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 마찬가지로 비방하는 말들에 대한 의식은 몸을 아는 데서 온다. 비방하는 말들은 몸의 증거에 반대된다 — 고전 1:10.

IV. 사랑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다 — 고전 12:31하-13:8상.

- A.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묘사한 사랑은 신성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고전 13:4-8상). 더 나아가 사랑이 그 영의 열매라는 사실은 사랑의 실질이 틀림없이 그 영임을 가리킨다(갈 5:22).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말은 생명이 없이 소리만 내는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제금과 같게 된다(고전 13:1, 14:1, 3, 4하, 12, 31, 고후 3:6).
- B.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보다 오래 남아 있으며, 가장 큰 것이다 — 고전 13:4-8, 13.
- C.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처럼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랑해야 한다(마 5:43-48).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가장 먼저 구원하신 사람은 신사가 아니라 사형 선고 받은 범죄자인 강도였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마 27:38, 눅 23:42-43).
- D. 생명의 영의 법은 사랑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이다 — 롬 8:2, 갈 6:2-3.
- E. 사랑의 법은 우리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도록 생명의 영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체화되어야 한다(갈 6:2, 롬 8:2). 그러나 우리에게 교만이 가득하다면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져 줄 수 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며 자신을 속이기 때문이다(갈 6:3).
- F.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우리는 자동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목양하며 찾는 영을 가진 목자들

이 될 것이다 — 요 21:15-17, 눅 15:3-7.

- G.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사랑의 수고이다 (고전 15:58, 살전 1:3).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행 20:35)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준다’(살전 5:14). ‘연약한 사람들’은 영이나 혼이나 몸이 연약하든지,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롬 14:1, 15:1).
 - H. 교회생활은 형제 사랑의 생활이며(요일 4:7-8, 요이 5-6, 요 15:12, 17, 계 3:7, 엡 5:2, 비교 유 12상),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엡 4:16).
 - I.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우리는 사역의 메시지들을 듣고 단지 지식만을 얻어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 — 고전 8:1하, 비교 고후 3:6.
 - J.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듭난 영은 사랑의 영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의 타락을 정복하기 위하여 불타는 사랑의 영이 필요하다 — 딤후 1:7.
 - K.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들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 열매를 맺어 신성한 생명을 표현해야 한다 — 요 15:12-17.
- V. **목양에 관한 장인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완성과 완결이다. 부활 이후에 주님은 베드로를 목양하셨고, 그에게 그분의 어린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는 위임을 주셨다.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켜 하나님의 양 떼인 교회를 돌보게 하려는 것이며, 이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 요 21:15-17.**
- A. 베드로는 주님의 이러한 위임에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고 말한다 — 벰전 2:25.
 - B.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라고 권유한다. 이렇게 목양한다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벰전 5:1-4). 베드로의 말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 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양 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 C.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된 사도들의 사역의 주된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 VI.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부터 오는 시대의 그분의 왕권까지를 계시해 주는 한 부류의 시들이다. 시편 22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많은 형제들이 산출되어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본다.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목자이신 것을 본다. 시편 24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장차 오실 왕이신 것을 본다.
- A. 이 세 시편은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장차 그분께서 그분의 왕국 안에서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것 사이에,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기 같은 영이신 목자로서 누리고 체험하며 표현하는 것이 있음을 보여 준다.
 - B. 이것은 목양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을 계시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지금 사람들을 목양하고 계신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목양에 참여한다면, 주님의 회복 안에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 올 큰 부흥, 새로운 부흥이 있을 것이다.

VII. 교회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데 필요한 것은 공급하는 생명에서 나오는 친밀한 관심이다 — 고후 7:2-7, 12:15, 몬 7, 12.

A. 성도들을 목양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죽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죽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친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비교 고후 3:6.

1. 하나님의 말씀의 젖, 곧 그리스도의 생명 공급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믿는 이들을 양육하는 데 사용되어야지 '삶의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벰전 2:2, 출 23:19하.

2. 우리에게 일을 수행할 재능은 있지만 친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일은 열매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넓어져서, 상태가 어떠하든지 모든 믿는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 — 고후 6:10-11.

B.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잘 맺고 많이 맺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C. 공급하는 생명은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생명이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려면 반드시 그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 즉 다정다감하고 깊고 친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